

한 분야에 최고가 되어본 사람은?!



장승국 1987년 (35세/만 34세) | 남 | 재직중

✉ admin@jmon.kr

☎ 010-8844-2605

☎ 010-8844-2605

🏠 (10834) 경기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 핵심역량**
- [백엔드] Django, FastAPI, C# WPF
 - [서버] AWS(Lambda, EC2, S3, RDS), Docker 등
 - [데이터베이스] Mysql, Postgresql, MongoDB
 - [기타] Selenium, Git, SqlAlchemy, Celery, VueJS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경력 4년 6개월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직전 연봉 : 6,400 만원)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서울전체 정규직	포트폴리오 총 2건
---------------------------	--------------------------	---	----------------------------------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9.06 ~ 2021.06	편입/졸업	학점은행제대학교 (서울)	경영학	-
2006.03 ~ 2007.06	자퇴	한국예술종합학교대학교 (서울)	무용창작	-
2003.03 ~ 2006.03	졸업	영일고등학교	문과계열	-

경력 총 4년 6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21.09 ~ 재직중	엠마우스	개발 / 선임연구원	서울	6,400만원
	📌 담당업무 Python(Django) 백엔드 개발			
2017.06 ~ 2021.08 (4년 3개월)	마켓비	전략기획 / 차장	경기	5,800만원
	📌 담당업무 서버 구축/관리, 업무 자동 응용프로그램 개발, 웹 개발, 내부 시스템 개발			
	📌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04.09	수상내역/공모전	성균관대 무용콩쿠르 1위	성균관대학교	-

2004.10	수상내역/공모전	세종대 무용콩쿠르 1위	세종대학교	-
2004.11	수상내역/공모전	경희대 무용콩쿠르 3위	경희대학교	-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Database / 중 Mysql, Postgres, MongoDB 등
AWS / 중 EC2, S3, RDS, Lambda 등
RPA / 중 C#/Python, Selenium, VBA, Macro 등
C# / 중 WPF, Winform, Xamarin, Office Add-in 등
Python / 중상 Django, FastAPI, DRF, TDD 등
Docker / 중 Dockerfile, docker-compose, network 등
JavaScript / 중 VueJS, Axios 등

취업우대사항

병역대상	군필 2010.11 ~ 2015.09 육군 중사 만기제대
------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github.com/famjmon/api https://shop.jmon.kr/

경력기술서

경력 기술서

<https://jmon.kr/portfolio>

자기소개서

[한 분야에 최고가 되어본 사람은?]

저에겐 3번의 의미 있는 도전과 그로 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8살, 봄.

그 첫 번째 도전은 적막한 신입생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춤이나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배워볼 생각도 없던 제가 무엇 때문인지 '댄스 동아리의 멤버를 모집'한다는 선배들의 제안에 손을 들어 지원하게 됩니다. 오디션이 없어 저는 바로 합격하게 되고 다음 날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몸치'에 '박치' 였던터라 모두 오래가지 못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 숨은 재능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건 '춤 실력'이 아닌 '노력'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아침까지 연습하는 노력과 쉬는 날이나 남은 시간에도 연습하는 노력, 가만히 있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노력 등 노력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희망했던 대학까지 합격하게 됩니다.

그때 전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노력을 가치를 알게 됩니다.

24살, 가을.

두 번째 도전은 당연한 곳에서 당연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무용과 군대? 어색했지만 저는 금세 적응했고 다르지만 같은 것도 많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들에 '부사관'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부사관 임관 후 저의 첫 위치는 한 팀의 리더입니다.

'리더, 그것은 앞에서 당기는 사람인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 밀어주는 사람인가?'

저는 '상황에 맞게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함께하는 사람' 이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팀은 항상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으며 이러한 팀워크는 훈련이나 평가 등에서 빛을 발휘해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군대'였지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팀의 단합이나 협동의 중요성, 리더의 가치나 덕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9살, 겨울.

제 마지막 도전과 변화는 이미 예견되어있었습니다.

저의 첫 프로그래밍이 언제인지 깊게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새로운 컴퓨터에 유일하게 설치되어있던 프로그램이 '비주얼 베이직'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화면에서 공이 움직이는 걸 만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Flash'를 배웠고 'HTML'로 간단한 홈페이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춤을 시작한 이후에는 '나'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 제작/편집 기술은 물론 '워드프레스'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마케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업무 자동화를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은 제가 상상하는 걸 현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이며 각 업무 들의 관계를 찾아 연결해주었습니다. 코드 몇 줄이 많은 업무를 대신해주었으며 같은 결과라도 다른 코드가 그 과정을 아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매력에 하나씩 배우다 보니 지금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로 인한 차이가 분명 했기에 쉬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공부에도 저를 흔들리지 않게하는 것은 '재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계속 성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의 일만 꾸준히 했던 사람에 비해 기술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 했을 때 보단 '+, -, *, /를 했을 때의 결괏값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생각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도전을 했기에 이제는 어떠한 노력이 지금의 저를 더 발전 시킬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며 어디에서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